■ 민족문화연구 제112호(2026.0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37-167.
http://doi.org/10.17948/kcs.2026..112.137

공모한 조작, 1260년 원종-쿠빌라이 만남 서사의 재구성

정동훈(鄭東勳)*

목 차

1. 문제의 소재
2. 『高麗史』와 『元史』가 묘사한 만남의 전말
3. 외면된 외교문서에 전하는 만남 장면
4.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
5. 조작된 서사의 탄생과 증폭
6.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기미년(1259) 연말 무렵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원종과 쿠빌라이의 만남 장면을 재검토하였다. 『高麗史』는 이 사건을 원종이 자발적으로 쿠빌라이를 찾아갔으며, 만남은 시종 우호적이었다는 서사로 정리해두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 원종이 쿠빌라이에게 보낸 외교문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해보면, 양자가 처음 대면한 것은 경신년(1260) 정월 초하루 무렵에 燕京에서였다. 원종이 쿠빌라이 진영에 합류한 이래 약 50일 동안, 몽골 측에서는 고려에 대한 강경책과 온건책이 경합하고 있었으며, 그런 가운데 원종은 억류에 가까운 푸대접을 받고 있었다. 양자의 만남이 시종 우호적이었다는 서술은 당사자들이 모두 사망한 30여 년 후에야 창작되어 공식 사서에 남게 되었고, 불편한 진실을 전하는 해당 시점의 문서는 후대의 역사 편찬 과정에서 은폐되었다. 그리고 양쪽 모두에게 좋은 쪽으로 조작된 서사는 사건 발생 100여 년 후까지도 끊임없이 소환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주제어: 元宗, 쿠빌라이, 趙良弼, 金坵, 李齊賢

* 서울교대 사회과교육과 부교수.

1. 문제의 소재

한국사의 흐름에서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 후반에 걸친 '원 간섭기' 혹은 '몽골 복속기'가 가져온 충격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 시기의 개막을 알리는 장면이 1259년 혹은 1260년 王倎(이하 즉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元宗'으로 표기하겠음)과 쿠빌라이, 곧이어 고려의 왕위에 오르는 태자와 역시 비슷한 시기에 몽골제국의 대칸이 되는 계승 후보자의 만남이었다. 이 사건은 한국사 전체에서도 손꼽힐 만한 중대한 장면이다. 이 만남을 계기로 고려와 몽골은 짧게는 뭉케 등극 이후 이어진 약 7년의 전쟁, 길게는 고종 13년(1231) 이래 약 30년 동안 지속된 장기간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이후 한 세기 넘게 이어지는 밀착 관계를 시작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중대한 사건이었던 만큼 기존 연구에서도 여기에 주목하여 매우 상세한 분석을 해왔다. 문제는 이 만남이 누구의 주도 아래,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고려와 몽골제국 양측의 기록 모두 이 장면을 매우 모호하게 묘사해두었기 때문이다.

본론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으나, 해당 사건이 벌어졌던 1259년-60년 겨울은 양국 모두 과도기였다. 고려와 몽골제국 양쪽에서 우연히도 거의 동시에 고종과 뭉케가 사망하고, 아직 새 군주가 즉위하기 전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高麗史』 世家의 편찬 기준으로는 원종 즉위년(1259), 『元史』 本紀의 편찬 기준으로는 憲宗 9년, 혹은 世祖 즉위년에 기록되어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때 원종은 당시의 수도였던 江都, 즉 강화도에 있지 않았고, 쿠빌라이는 그가 즉위하면서 수도로 삼았던 開平에 있지 않았다. 이 무렵에는 훗날 『고려사』 세가와 『원사』 본기 편찬의 기본 사료로 쓰였던 『元宗實錄』(정확히는 '忠敬王世家')과 『世祖實錄』, 그리고 그 집필에 기본 사료가 되었을 史官들의 업무 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 그런 탓에 실제로 이 만남에 관한 내용은 『고려사』 세가에는 원종이 귀국하여 강화도에 들어온 직후인 원종 원년(1260) 3월 丁亥(20일) 기사에 부록처럼 기재되었고, 『원사』 본기

에서는 쿠빌라이가 제위에 오른 3월 辛卯(24일) 기사에 이어서 실었다. 둘 다 실제 만남이 있은 지 대략 4-5개월 후, 사안이 일단락된 뒤에야 과거를 회상하는 식으로 기록에 남긴 것이다.

그런 까닭에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도 해석이 분분했다. 예컨대 이익주는 사료의 서술에 충실히 입각하여, 당시의 상황을 두고 원종의 입조는 쿠빌라이 측에게, 천명이 자신에게 왔다고 선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고 평가하였다. 뭉케 사망 후 쿠빌라이의 漢地派와 아릭 부케의 本地派가 내전을 벌이던 중이었으니 그 효과는 더욱 대단했다. 나아가 이 만남으로 몽골제국의 대외정책에 일대 변화가 생겨, 이른바 '漢法으로 漢地를 통치한다[以漢法治漢地]'는 원칙이 등장하였다고 해석하였다.[1] 김호동은 이 사건에 관해 가장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한문 사료인 『원사』와 『고려사』, 그리고 페르시아어 사료 『집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뭉케 사망 직후부터 한동안 쿠빌라이의 행적과 그를 둘러싼 정세를 종합하고, 거기에 더하여 쿠빌라이와 원종의 만남 장면을 매우 상세하게 재구성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는 양자의 만남이 우연한 조우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였으며, 이때 원종이 쿠빌라이에게 온전하게 臣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아니었으리라 조심스레 추측하였다.[2] 다만 이때의 만남으로 고려는 몽골제국과의 관계에서 국가적 독자성을 유지하는 '외연적 속국'이자, 동시에 카안 울루스의 부마 휘하의 속령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해석・평가하였다.[3] 한편 고명수는 뭉케 사후 원종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세를 판단한 후 자발적으로 쿠빌라이를 찾아가서 귀부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이때의 만남에 관한 새로운 기억을 창출하여 이후 외교적 위기 국면에서 두고두고 활용했다는 점을 밝혔다.[4]

그러나 외람되지만 감히 평하건대, 기존 연구에서는 그다지 탄탄하게 밝히지 못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닌가 한다. 단적으로 원종과의 만남을 당시에 쿠빌라이 측에서 "천명이 자신에게 돌아왔

1) 李益柱, 『高麗・元關係의 構造와 高麗後期 政治體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 37-42면.
2) 김호동, 『몽골제국과 고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7. 특히 83-92면 참조.
3) 김호동, 앞의 책, 92-120면.
4) 고명수, 「1259년 왕전王倎-쿠빌라이 만남의 의미」, 『인문과학연구』 37, 2023.

다"고 직접 선전한 기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후술하겠으나 이러한 서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40년이 지난 후,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후에야 고려 측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꼼꼼히 분석해보는 일이 된다. 『東文選』에는 이 수수께끼를 풀 열쇠가 되는 사건 직후의 외교문서가 한 건 실려 있다. 『동문선』에 수록된 이 무렵의 중요한 문서 대부분은 『고려사』 세가에도 그대로, 혹은 약간 요약한 정도로 실려 있지만, 유독 이 문서만큼은 선택받지 못하였달까, 더 정확히는 은폐되었다. 『고려사』 세가, 후술하겠지만 더 정확히는 그 史源이 되었던 〈忠憲王世家〉에서 구성한 서사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었다.

이에 이 글의 2장에서는 『고려사』와 『원사』의 기록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 당시 원종과 쿠빌라이의 행적을 최대한 세밀하게 추적하여 양쪽의 기록이 각각 어떤 모순과 오류를 품고 있는지를 파악해보겠다. 3장에서는 『동문선』에 실린, 원종이 즉위 직후에 쿠빌라이에게 보낸 문서를 단서로, 연대기 사료와 어떤 점에서 충돌하고 있는지를 되살려볼 것이다. 이어서 4장에서는 2장과 3장을 종합하여,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능한 수준에서 복원해보겠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지금까지 밝힌 사실관계가 후대의 기억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되었으며, 어떠한 서사 속에서 활용되어 왔는지 추적해보겠다.

2. 『高麗史』와 『元史』가 묘사한 만남의 전말

이 장에서는 1259년, 혹은 1260년에 왕전과 쿠빌라이가 만나고, 곧이어 왕전이 귀국하여 왕위에 오르기까지,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추적해보고자 한다. 우선 이 만남에 관해 가장 상세하게 묘사해놓은 『고려사』 세가의 기록을 제시하고, 각 구절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보겠다.

1) 원종과 쿠빌라이의 만남 이전

가-(1) 처음 憲宗 황제가 南征에 나서 釣魚山에 머물고 있을 때 왕은 燕京에서 行在로 가는 길에 京兆 潼關을 지났다. 그 지역을 지키던 이가 맞이하여 華淸宮에 이르러 온천에서 목욕하라고 청하였다. 왕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이곳은 唐 明皇이 머물렀던 곳이다. 비록 다른 세상이지만 人臣이 어찌 불경스럽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을 들은 이들은 그의 예의 아는 것에 감탄하였다. 六槃山에 이르렀을 때, 헌종 황제가 사망하였다. 아릭 부케가 북쪽 들판에서 군사를 일으켜 저항하니, 제후들은 걱정하고 의심하며 어디를 따라야 할지 알지 못했다.[5]

가-(1)은 원종과 쿠빌라이의 만남 이전까지의 상황을 요약해서 서술한 부분이다. 『고려사』의 기록을 근거로 원종의 행적을 복원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고종 46년(1259) 4월 21일, 뭉케에게 보내는 부왕의 表文을 받들고 강화도를 출발하였다. 叅知政事 李世材, 樞密院副使 金寶鼎 등 40인이 그를 수행하였고, 짐말 300여 필 분량의 선물을 가진 채였다.[6] 원종 일행은 그해 5월 17일에 東京, 즉 지금의 遼寧省 遼陽에 도착하였고 이틀 후 당시 몽골제국 측에서 대고려 전쟁을 주도하던 예수데르(余愁達 혹은 也速達)·松吉大王과 만나 교섭 끝에 그들의 공격을 일단 멈추게 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6월 8일에 먼저 돌아온 이세재의 보고에 의해 강화도의 고려 조정에 알려졌다.[7]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적이다.

그 뒤로 원종의 행로를 알려주는 기록은, 『고려사』 세가에서는 가-(1)이 전부이다. 그의 일행은 연경, 즉 현재의 베이징을 거쳐 京兆, 현재의 陝西省 西安에 이르렀다고 한다.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따져보면 랴오닝성에서 河北

5) 『高麗史』 권25, 원종 원년(1260) 3월 丁亥(20일). "初, 憲宗皇帝南征, 駐蹕釣魚山, 王自燕京, 赴行在, 道過京兆潼關. 守土者, 迎至華淸宮, 請浴溫泉. 王謝曰, '此唐明皇所嘗御者. 雖異世, 人臣安敢褻乎.' 聞者嘆其知禮. 至六槃山, 憲宗皇帝晏駕. 而阿里孛哥阻兵朔野, 諸侯虞疑, 罔知所從."

6) 『高麗史』 권24, 고종 46년 4월 甲午(21일). 『益齋亂藁』 권9, 〈忠憲王世家〉에는 원종을 수행한 인물로 이세재, 김보정 외에도 8명의 인명이 더 확인된다. 그 가운데는 1년 전에 崔誼를 죽이고 최씨 무신 정권을 무너뜨린 주역 가운데 한 명이자, 새로운 집권자로 부상한 金仁俊의 형인 金承俊도 포함되어 있었다.

7) 『高麗史』 권24, 고종 46년 6월 庚辰(8일).

省, 그 다음에 山西省 혹은 河南省을 지나 故都인 長安에 이른 것이다. 뭉케를 만나러 가는 길로 특이한 점은 없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당시 뭉케는 釣魚山, 현재의 重慶市 서북쪽에서 남송을 공략하던 중이었다. 원종 일행이 뭉케를 만나기 위해 조어산으로 향했다면 시안에서 四川省을 경유하여 남하했어야 한다. 그러나 원종은 六盤山, 지금의 寧夏 固原을 목적지로 서북쪽으로 갔다. 왜 그랬을까?

당시 육반산은 뭉케의 본영이 설치된 곳이었다.[8] 뭉케는 전년(1258)에 카라코룸에서 남하하여 같은 해 4월 육반산에 도착해 본영을 세우고서,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누어 자신은 7월에 寶鷄(지금의 산시성 서남부 바오지)로 향했다고 한다. 이때 뭉케는 경조의 수비 책임을 밍안다르(明安答兒)에게, 육반산의 본영은 쿤두카이(渾都海)에게 맡겨두었다.[9] 따라서 원종이 경조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그곳의 수비 책임자였던 밍안다르를 만났을 것이고, 그의 인도에 따라 육반산으로 향했다면 뭉케가 장차 조어산에서 철수하여 육반산의 본영으로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그곳에서 기다릴 참이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때 원종 일행은 넉넉한 여비를 마련해서 출발했고, 또 일행 가운데는 적어도 세 차례 이상 사신으로 카라코룸까지 다녀 온 경험 많은 김보정이 있었다.[10] 그러나 북중국 일대를 관통하는 이 여정은 분명 대단히 낯설고 위험한 일이었다. 자연히 몽골 측에서 소극적으로 말하면 안내,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호위, 더 나쁜 말로는 감시를 맡은 인물들이 동행하고 있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원종 일행을 육반산으로 인도했다면 그는 뭉케의 지시를 따르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원종 일행이 육반산에 있을 때 뭉케가 사망했다고 한다. 『원사』 본기에 따르면 뭉케가 사망한 것은 7월 21일이었다. 위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한다면 7월 21일 무렵 원종 일행은 육반산에 있었다. 앞서 5월 19일 동경에

8) 김호동, 앞의 책, 8면.
9) 『元史』 권3, 憲宗 8년 4월 및 7월; 권126, 廉希憲.
10) 『高麗史』 권23, 고종 25년(1238) 12월; 28년(1241) 4월; 권24, 38년(1251) 2월 癸丑. 고종 대 카라코룸까지 왕래했던 고려 사신들에 대해서는 김장구, 「대몽골국 초기(1206-1259) 카라코룸으로 간 고려사신들」, 『이화사학연구』 57, 2018 참조.

있었던 것을 떠올리면 약 두 달에 걸쳐 북중국을 횡단한 끝에 중원의 서북쪽 끝에 다다랐던 것이다. 그렇다면 뭉케의 사망 소식을 접한 것은 언제였을까? 당시 汝南(허난성 周口) 일대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던 쿠빌라이는 8월 중에 이 소식을 들었으며, 남송 조정이 이 사실을 확인한 것은 8월 14일이었다고 한다.[11] 마찬가지로 8월 중순 쯤, 원종 일행도 그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가-(1)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뭉케의 사망 이후 아릭 부케가 군사를 일으키자, "제후들은 걱정하고 의심하여 어디를 따라야 할지 알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배경 설명은 원종의 '결단'을 수식하기 위해 설정된 장치로 보이지만, 어쨌든 뭉케 사후 전체 몽골군 진영이 일시 혼란에 빠졌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멀리서 항복하러 온 고려의 태자 일행을 자유롭게 풀어줬으리라고는 믿기 어렵다. 즉 이후의 행보를 원종이 스스로 결정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은 뒤에서 다시 상세히 논하겠다.

2) 원종과 쿠빌라이의 만남

가-(2) 이때 황제의 동생인 쿠빌라이가 江南에서 군사를 살피고 있었다. 왕은 드디어 말머리를 돌려 험난한 길을 뚫고 梁・楚의 교외에 이르렀다. 황제의 동생은 마침 襄陽에 있다가 군대를 거느리고 북상하고 있었다. 왕은 軟角 烏紗 幞頭를 쓰고 넓은 소매의 자색 비단 袍를 입고 코뿔소 가죽 띠와 상아 笏을 차고, 예물을 받들어 길가에서 영접하였다. 그의 눈썹과 눈은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행동거지는 예법에 맞았다. 여러 관료들도 品服을 입고 뒤에 늘어서 있었다. 황제의 동생이 놀라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고려는 만리 바깥의 나라로 당 太宗이 친히 정벌하고서도 복속시키지 못했었다. 지금 그 나라 세자가 스스로 와서 나에게 귀의하였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 하며 크게 칭찬하고 포상을 하고서 함께 開平府에 이르렀다.[12]

---

11) 宮崎市定, 「鄂州之役前後」, 『アジア史研究』 1, 東京: 同朋舍, 1957, 402면.

12) 『高麗史』 권25, 원종 원년(1260) 3월 丁亥(20일). "時, 皇弟忽必烈觀兵江南. 王遂南轅間關, 至梁楚之郊. 皇弟適在襄陽, 班師北上. 王服軟角烏紗幞頭, 廣袖紫羅袍, 犀鞓象笏, 奉幣迎謁道左. 眉目如畫, 周旋可則, 群僚皆以品服, 排班于後. 皇弟驚喜曰, '高麗萬里之國, 自唐太宗親征而不能服, 今其世子, 自來歸我, 此天意也.' 大加褒奬, 與俱至開平府."

가-(2)는 본격적으로 원종과 쿠빌라이가 만난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 위 기사만 가지고는 이 만남이 이뤄진 시점을 알 수 없다. 장소는 '梁・楚의 교외'이라고 특정했다. 梁은 960년부터 1127년까지 북송의 수도였으며, 1214년부터 1234년까지 금이 수도로 삼았던 開封(허난성 카이펑)을 가리키며, 楚는 일반적으로 湖北省을 말한다. 훗날 李齊賢은 이때의 만남이 이뤄진 장소를 반복적으로 '汴梁之郊'라고 지목했는데,[13] 양자를 아울러 고려하면 개봉 외곽으로 보아도 무난할 것이다.[14] 이때 쿠빌라이는 襄陽(후베이성 양양)에 있다가 회군하여 북상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점은 잠시 뒤에 이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서 당시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눈썹과 눈은 그림처럼 아름다웠다"거나 하는 식의 서술은 '以實直書'라는 『고려사』의 편찬 원칙에 썩 어울리지 않는 무척 주관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다.

원종을 만난 쿠빌라이는 고려를 가리켜 "당 태종이 친정하고서도 복속시키지 못한 나라"라고 하며, 그가 자신을 찾아온 것을 두고 "하늘의 뜻"이라고 평했다고 한다. 그러나 『원사』를 비롯한 당시의 기록 어디에도 이러한 서술은 등장하지 않는다. 아릭 부케와의 일전을 앞둔 상황, 그래서 여러 제후들의 향배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고려 태자의 자발적인 귀순은 "하늘의 뜻"이 자신에게 있음을 선전할 만한 좋은 소재였을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쿠빌라이가 이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흔적은, 당시의 기록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만남이 있었던 전후, 쿠빌라이의 행적을 복원해보자. 『원사』 본기를 기준으로 그의 움직임을 추적해보면 다음과 같다.[15]

· 기미년(1259) 9월 1일, 양쯔강 北岸에 주둔 중 제왕 무게(穆哥)가 뭉케 사망 통지
· 9월 4일, 양쯔강 건너 鄂州(후베이성 武漢) 공격 개시. 약 3개월 지속
· 윤11월 2일, 철군 개시

---

13) 『益齋亂藁』 권6, 〈在大都上中書都堂書〉 "迎拜于汴梁之地."; 권8, 〈乞比色目表〉 "觀光過汴."
14) 김호동, 앞의 책, 84-85면 역시 개봉 인근으로 보았다.
15) 『元史』 권4, 世祖 本紀, 己未年 참조. 이밖에 김호동, 앞의 책, 85면 및 杉山正明, 「鄂州の役」, 『モンゴ帝國と大元ルウルス』,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4, 95-105면 참조.

· 윤11월 20일, 연경(베이징)에 도착. 이때부터 연경 근처에서 겨울 보냄
· 경신년(1260) 3월 1일, 開平(내몽골자치구 시린궈러맹(錫林郭勒盟)) 도착
· 3월 23일, 대칸 즉위

악주에서 연경까지는 직선거리로 1,100km에 달한다. 『원사』 趙良弼 열전에 따르면 쿠빌라이는 북상하던 중 "衛에 이르러" 조양필을 경조로 파견했다고 한다.[16] '衛'는 허난성 鶴壁市 淇縣으로, 악주에서 연경까지의 직선 경로상에 위치한다. 즉 쿠빌라이는 악주를 출발하여 연경까지 최단 경로를 택해 18일 만에 주파한 것이니, 중간에 지체함 없이 곧바로 달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7] 악주에서 개봉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500km, 연경까지의 노선 가운데 중간쯤에 위치한다. 만약 가-(2)의 설명처럼 원종과 쿠빌라이가 개봉 부근에서 만났다면 그 시점은 윤11월 10일 전후가 되었을 것이다.[18]

가-(2)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쿠빌라이가 원종과 "함께 개평부에 이르렀다[與俱至開平府]"고 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오류이다. 위에서 정리했듯 쿠빌라이가 개평부에 도착한 것은 경신년(1260) 3월 1일이었다. 한편 원종이 개경으로 귀환한 것은 3월 17일이었으나, 그에 앞서 2월 27일에는 西京을 통과했다고 한다.[19] 또한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참이지만 원종은 이때 서경에서 8-9일을 지체했다고 하니,[20] 실제 서경에 도착한 것은 이보다 이른 2월 중순 경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연경에서 겨울을 난 쿠빌라이가 개평으로 북상할 무렵, 원종 일행은 작별을 고하고 귀국길에 올랐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함께 개평부로 '향했다' 정도라면 납득할 수 있으나, 개평부에 '이르렀다'는 구절 자체는 분명히 오류이다.

---

16) 『元史』 권159, 趙良弼. "至衛, 遣如京兆察訪秦・蜀人情事宜, 不踰月, 具得實還報."
17) 杉山正明, 앞의 책, 105면.
18) 김호동, 앞의 책, 85면. 張東翼도 『益齋亂藁』 권6, 〈在大都上中書都堂書〉 등에 근거하여 이 만남이 윤11월에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張東翼,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綜合年表』, 동북아역사재단, 2009, 197면.
19) 『高麗史』 권25, 원종 원년 2월 乙丑; 3월 甲申.
20) 『高麗史』 권25, 원종 원년 4월 丙午. "盖帝未卽位時, 聞王至西京留八九日, 疑有變故, 賜是書焉."

3) 원종과 쿠빌라이의 작별

가-(3) 본국에서 高宗이 훙서하였다고 고하자 (쿠빌라이는) 이에 다루가치 쉬리다이(束里大) 등에게 명하여 그(원종)를 호송해서 귀국하게 하였다. 江淮宣撫使 趙良弼이 황제의 동생에게 말하기를, "고려는 비록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산과 바다에 의지해 막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군사를 쓴 지 20여 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복속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太子 王倎이 내조하였을 때 마침 황제의 수레가 西征하시어서 체류한 것이 두 해나 되었는데, 숙소[供張]를 소박하게 하여 그 마음을 어루만지지 못했으니, 일단 돌아가면 앞으로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館舍와 음식을 후하게 하고 藩王의 예로써 대접해야 합니다. 지금 듣건대 그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니 진실로 왕전을 왕으로 세워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면 분명 은혜와 덕에 감격하여 신하의 직분을 다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 명의 병사도 수고롭게 하지 않고 한 나라를 얻는 방법입니다." 하였다. 陝西宣撫使 廉希憲 또한 그렇게 말하였다. 황제의 동생이 이를 옳게 여겨 그날로 숙소를 바꾸어주고 더욱 후대하였다.[21]

가-(3)은 원종이 쿠빌라이와 만난 후 귀국한 경위를 서술한 부분이다. 먼저 확인해둘 것은 가-(3) 가운데 조양필이 했다는 말 부분은 원 대에 蘇天爵이 지은 『國朝名臣事略』에 인용된 조양필 墓碑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이다.[22] 즉 『고려사』 원종 세가의 가) 기사는 이제현이 지은 〈忠憲王世家〉와(후술), 소천작이 인용해서 널리 알려지게 된 조양필의 묘비명 내용을 그대로 조합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

21) 『高麗史』 권25, 원종 원년(1260) 3월 丁亥(20일). "本國以高宗薨告, 乃命達魯花赤束里大等護其行歸國. 江淮宣撫使趙良弼, 言于皇弟曰, '高麗雖名小國, 依阻山海, 國家用兵二十餘年, 尙未臣附. 前歲, 太子倎來朝, 適鑾輿西征, 留滯者二年矣, 供張疏薄, 無以懷輯其心, 一旦得歸, 將不復來. 宜厚其館穀, 待以藩王之禮. 今聞其父已死, 誠能立倎爲王, 遣送還國, 必感恩戴德, 願修臣職. 是不勞一卒, 而得一國也.' 陝西宣撫使廉希憲亦言之. 皇弟然之, 卽日改館, 顧遇有加."

22) 『國朝名臣事略』 권11, 〈樞密趙文正公〉 "公言, '高麗雖名小國, 依阻山海, 國家用兵二十餘年, 尙未臣附. 前歲, 世子王倎來朝, 適鑾輅西征, 留滯者二年矣, 供張疏薄, 無以懷輯其心, 一旦得歸, 將不復來. 宜厚其館穀, 待以藩王之禮. 今聞其父已死, 誠立之爲王, 遣送還國, 世子必感恩戴德, 願修臣職. 是不勞一卒, 得一國也.' 上是其言, 卽日改館世子, 顧遇有加, 尋賜封冊遣還. 高麗遂壹意內附, 皆自公發之."
『고려사』 세가에 인용되지 않은 것은 마지막의 "고려는 드디어 한마음으로 내부하였으니, 이는 모두 공이 발의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구절뿐이다.

가-(2)의 마지막 구절과 이어서 생각하면 원종 일행이 고종의 부고를 접하고 쿠빌라이로부터 귀국 승인을 받은 것이 모두 개평에서 이루어진 일처럼 읽힌다. 그러나 원종이 개평까지 가지 않았음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다. 한편 『고려사』 원종 세가에서 원종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처음 기재한 2월 24일자 기사에는 "왕이 경조부에서 부고를 듣고 사흘 동안 상례를 치룬 후 상복을 벗고, 쿠빌라이 대왕의 명을 받아 귀환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23] 앞서 언급했듯 2월 24일에는 원종이 이미 서경에 도착해 있었을 때이므로, 이 기사는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구절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는 원종이 고종의 부고를 접한 위치가 경조부, 즉 현재의 시안에 있을 때라고 하였다. 가-(2)의 설명대로 원종과 쿠빌라이가 개봉에서 만났다면 함께 경조부에 머물렀을 일은 없었다. 실제로 쿠빌라이가 이 무렵 경조에 들른 일도 없었다.[24] 이 기사는 경조부에서 부고를 접하고, (다른 어딘가에서) 쿠빌라이로부터 귀국 승인을 받았다고 읽어야 한다.

일단 원종이 고종의 부고를 접한 장소가 경조부라는 위 기록을 인정한다는 가정 하에, 그 시점은 언제였을까? 고종이 사망한 것은 기미년(1259) 6월 30일이었다. 원종은 5월 19일까지는 동경에 있었고, 7월 하순에는 육반산에 있었다고 하니, 경조부를 지나간 것은 6월 하순쯤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華淸宮의 일화를 남긴, 서쪽으로 향하던 원종이 이 소식을 듣기에는 시일이 맞지 않다. 그렇다면 육반산을 출발해서 동쪽으로 오던 때는 어떤가? 육반산에서 개봉으로 가려면 경조부를 지나야 한다. 시점상으로도 뭉케의 사망을 확인하고 원종 일행이 육반산에서 출발한 것이 8월 중하순 무렵이었다면, 그리고 동쪽을 향해 천천히 이동하던 중 경조를 지났다면, 9월에서 11월 사이의 언젠가 부고를 듣고 삼일장을 치렀다고 본다면 무리가 없다.[25]

---

23) 『高麗史』 권25, 원종 원년 2월 壬戌. "王在京兆府聞訃, 服喪三日而除, 受忽必烈大王之命, 乃還."
24) 이에 김호동은 이 구절의 '京兆府'는 '開平府'의 오류일 것으로 보았다. 김호동, 앞의 책, 85면. 그러나 앞서 논증했듯 둘은 함께 개평부에 간 일이 없었으므로, 그 추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5) 혹은 더 높은 가능성으로는 원종이 고종의 부고를 접한 위치가 경조부가 아니라 연경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본고의 논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어지는 부분은 쿠빌라이가 원종을 국왕으로 삼아 귀국시켰다는 사실과 그러한 결정의 배경에 조양필과 廉希憲의 건의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원사』 세조 본기에도 위와 거의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다.[26] 그렇다면 이 결정은 언제 내려졌을까?[27] 조양필의 말 가운데 "작년에[前歲]" 세자 일행이 와서 "체류한 지 두 해[留滯者二年矣]" 되었다고 한 부분이 주목된다. 즉 위 건의는 해가 바뀌어 경신년에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원종이 2월 중순 쯤 서경에 도착했음을 고려하면, 연경을 출발한 것은 늦어도 1월 중순쯤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종이 귀국길에 오른 시점을 조금 더 좁혀보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는 경신년(1260) 4월 9일에 개경에 도착한 몽골 사신 형절 일행의 일정이 힌트를 준다. 그는 원종이 귀환하던 중 서경에서 8-9일 지체했다는 소식을 듣고 파견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원종이 서경을 통과한 것은 2월 27일이었다. 만약 2월 25일 경에 원종이 서경에서 8-9일 지체하고 있다는 소식이 쿠빌라이를 향해 출발했다고 가정한다면, 원종이 서경에 도착한 것은 2월 17일쯤이 될 것이다. 2월 25일부터 이 사실을 질책하는 사신 형절이 개경에 도착하는 4월 9일까지는 43일 정도가 된다. 딱 중간인 3월 17일, 사신 형절이 출발했다면,[28] 그가 출발한 장소는 개평이었을 것이다. 중간에

---

26) 『元史』 권4, 세조 중통 원년(1260) 3월 辛卯. "陝西宣撫使廉希憲言, '高麗國王嘗遣其世子倎入覲, 會憲宗將兵攻宋, 倎留三年不遣. 今聞其父已死, 若立倎, 遣歸國, 彼必懷德於我, 是不煩兵而得一國也.' 帝是其言, 改館倎, 以兵衛送之, 仍赦其境內."
여기서는 쿠빌라이와 왕전의 만남 장면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다만 가-(3)에 기록된 조양필의 건의와 거의 같은 내용을 염희헌이 한 말로 기록하고 있다. 이 기사는 중통 원년 3월 26일 자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미 원종이 개경에 도착한 뒤였다. 즉 이 기사는 원종이 쿠빌라이의 진중에 머물 때 있었던 일을, 뒷날의 기록에 부기하여 넣은 것이다. 굳이 의도적인 조작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으나, 다만 편찬 과정에서 발생한 약간의 오류였다고 할 수 있다.

27) 『元史』 권208, 高麗傳에도 "世祖中統元年三月, 暾卒, 命倎歸國爲高麗國王, 以兵衛送之, 仍赦其境內." 라고 하여, 이 결정이 중통 원년 3월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권126, 廉希憲 열전에서도 염희헌이 이러한 건의를 한 시점을 쿠빌라이가 즉위한 이후인 것처럼 배치하였으나, 마찬가지 이유로 모두 오류이다.

28) 참고로 『高麗史』 세가에는 이해 4월 24일에 몽골 사신 其多大가 詔書를 가지고 강화도에 도착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元高麗紀事』에는 이 명령이 같은 해 4월 2일에 발령되었다고 한다. 개평부에서 강화도까지 22일 걸린 것으로, 같은 속도를 대입해보면 사신 형절이 출발한 날짜도 3월 17일이 된다.

대칸에게 보고하고 명령서를 작성하며 사신을 차정하기까지의 시간을 최소로 계산한다면, 당시 서경에서 개평까지 가는 데 편도로 20일 정도 걸렸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걸 역으로 계산하면 원종은 경신년 정월 말쯤 연경을 출발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29]

지금까지의 검토 사실을 종합해보자. 『고려사』 원종 세가에 기록된 원종과 쿠빌라이의 만남에 관한 기사에는 도저히 취신할 수 없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다. 예컨대 둘이 함께 개평부에 '이르렀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는 최대한 신뢰한다는 가정 하에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추출해낸다면, 원종은 기미년(1259) 윤11월 10일 전후 개봉 인근에서 쿠빌라이 진영에 합류했을 것이다. 당시 쿠빌라이는 악주에서의 남송 공격을 중단하고 닥쳐올 칸위 계승 분쟁에 대비하고자 전속력으로 북상하던 중이었다. 원종은 육반산까지 갔다가 뭉케의 부고를 듣고 동쪽으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중간에 경조에서 고종의 부고를 듣고 상례까지 치른 뒤였다. 조양필이 정확히 꿰뚫어 보았듯 원종은 매우 간절히 고려로 돌아가고 싶은 상태였다. 그 뒤 둘은 약 2달 쯤 동행하다가 경신년 정월 말쯤 무렵 헤어져, 쿠빌라이는 북상해서 3월 1일에 개평에 도착한 후 몽골제국의 대칸위에 올랐고, 원종은 3월 17일에 개경에 도착한 후 고려의 국왕위에 올랐다.

3. 외면된 외교문서에 전하는 만남 장면

2장에서 『고려사』 세가의 기록을 가능한 한 인정하면서 원종과 쿠빌라이의 만남 장면을 복원해보니 약간의 오류를 제외하고는 크게 어색한 점은 없다. 그런데 『동문선』 권40에 19번째로 실린, 金坵가 지은 〈陳情表〉에는 이와는 상당히 배치되는 정황이 실려 있다.

우선 이 문서가 작성된 배경부터 살펴보자. 문서가 작성된 시점은 원종 원

29) 참고로 고려와 몽골제국의 관계가 가장 밀접하였고, 양국 사이의 역참로가 가장 완전하게 정비되어 있던 시점에는 개경에서 大都까지 가장 빨리 왕복할 경우 20일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정동훈, 「고려 사신의 몽골 잠치(站赤) 이용」, 『사학연구』 134, 2019, 72면 참조.

년(1260) 4월이다. 4월 9일에 몽골의 사신 荊簡 등 25인이 개경에 도착했다. 이들이 가지고 온 쿠빌라이의 문서에서는 세자, 즉 원종의 귀국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두고, "듣건대 그대 나라에 내란이 있어 맹약을 저버렸다 하여 변방 장수들이 다시 경계를 엄히 하자고 청하고 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인가? (중략) 만약 소문이 잘못된 것이라면 세자는 어찌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국경 근방에서 망설이고 있는가?" 따져 물었다.[30] 이 문서를 인용한 뒤 『고려사』의 地文에서는 "황제가 즉위하기 전, 왕이 서경에서 8-9일 동안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변고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이 문서를 보낸 것이었다."고 해설하였다.[31] 〈진정표〉의 본문에는 "우선 원래 온 사신에게 문서를 부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先附元來使佐而稱謝.]"라고 하였다. 몽골 사신 형절은 그 달 27일까지는 개경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므로 그 이후에 발송한 문서라고 이해할 수 있겠으나, 사안의 위급함을 생각하면 같은 달 13일에 파견한 太府少卿 張季烈이 가지고 간 것으로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32]

이제 본격적으로 해당 문서의 구절을 하나하나 따져 읽어보자.

나-(1) 작년에 親朝했던 것은 대개 마지막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누워계셨으나 어쩔 수 없이 하직해야 했고, 제가 바다를 건넌 뒤에야 부고를 접했습니다. 나아갈지 물러날지 양단간에 어찌 결단해야 하나 하고 있었고, 슬픔과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2) 그런데 다행히도 上聖께서 새로 등극하신 때를 만나 마침 中都에 이르러 알현할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관저에 머물게 하시었는데 이는 바로 옛날 皇親이 거처하던 곳이었습니다. 때마침 新正이었는데, 여러 악부에 명하시어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주셨고 훌륭한 말을 하사하시며 보물 안장을 더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유례없는 총애와 영광을 베푸시고, 밝은 조정의 가엾이 여기심과 살피심을 보이셨습니다.

---

30) 『高麗史』 권25, 원종 원년 4월 丙午. "乃知爾國內亂渝盟, 邊將復請戒嚴. 此何故也 (중략) 以謂傳聞之誤耶, 世子何不之國, 而盤桓於境上也." 『元史』 권208, 高麗傳에도 동일한 문서가 실려 있다.

31) 『高麗史』 권25, 원종 원년 4월 丙午. "盖帝未卽位時, 聞王至西京留八九日, 疑有變故, 賜是書焉."

31) 19세기에 김구의 시문을 모아 『止浦先生文集』을 편찬했을 때 그 편자도 그렇게 추정하였다. 『止浦先生文集』 2-12. 〈陳情表〉

나-(3) 참새가 지붕을 뚫는다는 교묘한 말이 모두 일소되고, 학이 조롱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 같이 외로운 종적에게 천리 길을 돌아가도록 허락하시었으며, 여러 가지로 위로의 말씀을 내리시니 그 은혜가 평범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탈 없이 돌아오게 되었으니 이 감사한 마음을 어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야 弊封의 누추한 곳에 도착하였는데 또다시 밝은 가르침을 더해주시어 영화롭게 하시었습니다.[33]

나-(1)은 만남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서술한 부분이다. 인용문의 앞부분까지를 아울러 살펴보면, 기미년 4월에 자신이 친조를 결정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며, 창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몽골군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강화로 천도하였고, 여전한 몽골 측의 분노를 피하기에 급급하던 차에 어쩔 수 없이 친조를 단행했다고 한다. 즉 자신이 뭉케를 만나러 떠났던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실된 귀부가 아니라 다만 남은 백성들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하였다. 이 구절을 배치함으로써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갈등은 뭉케 시대까지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으며, 앞으로 쿠빌라이의 시대는 "무기를 내려놓고 문을 닦는[偃武修文]" 때임을 강하게 암시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4] 이어서 원종은 "바다를 건넌 뒤에야 부고를 접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는 2장에서 검토한 결과와 다르지 않다.

나-(2)는 이 '운명적'인 만남의 장면을 묘사한다. 여기에는 이 글의 주된 관심사인, 만남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드러난다. "마침 中都에 이르러 알현할 수 있었습니다.[適至中都而獲覲]."라고 한 데서 둘이 만난 곳은 '중도'임이 드러난다. 중도는 金의 중도, 즉 현재의 베이징을 가리킨다.[35] 그

33) 『東文選』 40-19. 〈陳情表〉 "故前歲之親朝也, 蓋爲乎子遺. 父曾臥病而忍辭, 身已涉海而聞訃. 進退兩端之安決, 哀摧萬狀之莫言. 幸遭上聖之繼承, 適至中都而獲覲. 館于華邸, 迺昔皇親之所居. 時則新正, 命諸樂部而式燕, 賜之良馬, 副之寶鞍. 特推曠代之寵光, 仍示大明之憐察. 雀屋謂穿之巧說, 盡掃一邊, 鶴籠思出之孤蹤, 許還千里, 多般慰諭, 夐倍尋常. 故無而旋歸, 而曷勝於感戴. 纔及弊封之戾止, 又加明訓而榮之."

34) 정동훈, 「고려가 몽골제국에 바라는 것 - 김구(金坵)의 외교문서에 표현된 원종 대 양국관계의 재구성 -」, 『韓國史硏究』 198, 2022, 102-105면.

35) 금은 海陵王 貞元 원년(1153)에 上京(지금의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中都로 공식 천도하였으며, 1214년 몽골군에 함락된 이후로는 과거 북송의 수도였던 開封으로 천도하였다.

리고 그때는 "때마침 新正" 그러니까 경신년 정월 초하루 무렵이었다. 『원사』 세조 본기에 따르면 쿠빌라이는 기미년 윤11월 20일에 연경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겨울을 보냈다고 하니, 경신년 신정에 중도에 있었다고 하는 이 문서의 내용과 시간과 공간이 맞아떨어진다. 그렇다면 『고려사』 세가에 근거하여 윤11월 10일 전후 개봉 근처에서 만났다는 2장의 검토 결과와는 시간상으로 약 50일 정도 차이가 있고, 장소도 약 600km 떨어져 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이 무렵 쿠빌라이 진영 내부에서 있었던 일, 일어났던 논쟁에 대해 조금 상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원종은 이때 쿠빌라이가 자신을 "옛날 皇親이 거처하던 곳", 그러니까 아마도 옛 금나라의 황친이 거주하던 화려한 관저에 머물게 하였다고 떠올렸다. 가-(3)에서 조양필은 그때까지 원종 일행에 대해 "숙소[供張]를 소박하게 하여 그 마음을 어루만지지 못했으니," "館舍와 음식을 후하게" 해주자고 건의하였다고 한다. 이에 쿠빌라이는 "그날로 숙소를 바꾸어 주었다"고 하며, 『원사』 고려전도 이 사실을 특기하였다. 그렇다면 '화려한 관저'로 바꾸기 이전, '소박했던' 숙소와 대접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나-(3)에는 『고려사』에는 실려 있지 않은 당시의 복잡했던 상황이 은밀한 말로 묘사되어 있다. 원종은 자신의 귀국이 결정되기 전까지 "참새가 지붕을 뚫는다는 교묘한 말"이 있었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이 구절은 『詩經』 召南 行露篇에, "누가 참새에게 뿔이 없다 하더뇨. 어떻게 내 지붕을 뚫었을까.[誰謂雀無角 何以穿我屋]."라고 한 말에서 따온 것으로, 터무니없는 참소를 의미한다. 즉 원종이 쿠빌라이의 진중에 있을 때, 그를 참소하는 말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쿠빌라이가 그를 물리치고 원종의 귀환을 허락했는데, 이를 두고 "평범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은혜"였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참소'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현전하는 다른 사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원종을 만났을 때 쿠빌라이 진영에서 그를 마냥 환대만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귀국을 승인받은 원종은 "학이 조롱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 같이,"[36] 그러니까 조롱에 갇혀 있던 처지에서 겨우 풀려나 천리길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참새가 지붕을 뚫는다는" '참소'를 한 이들은 누구였을까? 쿠빌라이가 뭉케의 사망 소식을 확인했을 때 그의 진중에서는 진퇴 여부를 두고 매우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원사』에는 郝經을 필두로 해서 철군할 것을 주장한 인물들의 논의만을 싣고 있다. 다만 한쪽의 주장이 이렇게 강렬했던 것을 보면, 반대쪽 주장도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임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이때 학경이 올린 班師議의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직 송의 세력이 만만치 않고, 아군은 지쳐있으니 일단 회군하여 힘을 비축한 후에 다시 공격하자는 것이었다. 남송 공격을 개시한 지 한참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전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학경은 "諸將이 士人들을 탓하여 (그들의 계책은) 쓸 수 없다고 말한다."고 하였다.[37] 즉 여러 장수들은 학경을 위시한 문인 관료들의 유보적 전략을 부정하며, 여세를 몰아 공세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강경책을 주장했던 것이다.[38]

쿠빌라이는 결국 학경 등의 의견을 택하여 철군을 택했다. 그러나 뭉케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말머리를 북쪽으로 돌린 것은 아니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長江을 건너 악주를 포위하고 공격했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그가 이끌던 좌익군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거나 전체 몽골군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였다는 등의 설명이 충분히 설득력 있지만,[39] 이 글의 관심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쿠빌라이 진중에서 강경책을 주장한 여러 장수들의 목소리가 매우 컸다는 점 또한 알 수 있다.

'諸將'의 입장에 서서 고려 세자의 처리 방안을 따져보자. 길게는 28년, 짧

---

36) 이 말은 蘇軾의 〈僧惠勤初罷僧職〉이라는 시에 "드높이 날던 청전의 학이, 답답하게 새장에 갇혀 있네.[軒軒青田鶴, 鬱鬱在樊籠.]"라고 한 데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37) 『元史』 권157, 郝經. "諸將歸罪士人, 謂不可用."

38) 즉위 이전 쿠빌라이 진영의 여러 참모 그룹에 대해서는 蕭啓慶, 「忽必烈「潛邸舊侶」考」, 『元代史新探』, 臺北: 新文豊出版公司, 1983, 274-284면 및 杉山正明, 『クビライの挑戰 - モンゴル海上帝國への道』, 東京: 朝日新聞社, 1995, 103-105면 참조.

39) 宮崎市定, 앞의 논문, 403면; 杉山正明, 위의 책, 1995, 114-115면; 杉山正明, 앞의 책, 2004, 97-98면; 김호동, 앞의 책, 12면 등.

게는 7년이나 지속한 전쟁 끝에 몽골군은 끝끝내 고려 왕실의 항복을 받아내지 못했다. 제장들의 주장대로라면 그 공격이 여전히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사를 늘리고 공세의 수위를 높여야만 저들의 항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 지금 우리 수중에 들어와 있는 고려 세자는 저들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된다. 그러니 그를 억류한 채 항복을 강제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이러한 주장은 쿠빌라이 진영 내부에서만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 앞서 4월 9일에 몽골 사신 형절이 가지고 온 문서에서 쿠빌라이는 "변방 장수들이 다시 경계를 엄히 하자고 청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한 변방의 장수들이란 좁게는 전년인 기미년 5월에 동경에서 원종과 만났던, 그리고 이때는 서경 일대에 진을 치고 고려를 압박하고 있었던 예수데르 등을 가리킬 것이며, 더 넓게는 뭉케로부터 고려 공격의 책임을 위임받아 그때까지 전쟁을 수행해오고 있던 동방 왕가 및 좌익 대신들을 가리킬 것이다. 원종이 친조에 나선 이후에도 "고려의 항복은 진심이 아닙니다."라고 참소했던 '洪福源의 아들' 또한 그 가운데 한 명이었음이 분명하다.[40]

일선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던 변방 장수들이 이러한 태도를 취한 이유는 명확하다. 그들은 짧게는 지난 7-8년, 길게는 약 30년 동안 고려 공격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전쟁의 양상은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몫을 챙기려는 약탈전 양상을 띠고 있었다.[41] '士人'들의 주장처럼 전쟁을 마무리한다면, 그리고 이후 쿠빌라이가 결단한 대로 군사를 철수시키고 고려와의 교섭 경로를 대칸이 독점해버린다면, 그들이 차지해왔던 몫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었다. 이에 그들은 고려 내에서 權臣이 다시 나타나 내란을 일으켰다는 식의 '구구한 말[悠悠之言]'을 늘어놓았던 것이다.

나)의 〈진정표〉를 통해 확인한 바를 정리해보자. 원종과 쿠빌라이는 경신년 정월 초하루 무렵 베이징에서 만났다. 그 전까지는 50일 남짓, 강경파들

40) 『高麗史』 권25, 원종 즉위년 11월 癸卯. "李世材偕蒙使於散等四人來. 初世材在燕朝, 洪福源子使人訴於帝曰, '高麗出降, 非眞也.'"

41) 정동훈, 「동방왕가의 사업에서 쿠빌라이의 사업으로 - 쿠빌라이의 즉위와 고려-몽골 관계의 큰 전환 -」, 『韓國史硏究』 191, 2020, 222-230면.

의 '참소' 탓에 원종 일행에 대한 대우가 소홀했는데, 조양필과 염희헌 등 온건파의 건의에 따라 쿠빌라이가 원종이 머물 관소를 바꿔주고 매우 후하게 대접해주었다. 강경파들은 원종을 그대로 억류해두고 고려와의 전쟁을 끝까지 밀어붙이자고 주장했으나 온건파들은 원종을 귀국시켜 그를 통해 고려의 복속을 유도하자고 건의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다른 문서들에서도 확인된다.

다-(1) (중략) 나의 바름이 성상께서 알아봐주시는 은혜를 깊이 입어 이에 겨우 돌아오게 되었으니, 삼가 스스로 감격하여 눈물짓습니다. (중략) 저를 貴賓의 관저에 머물게 하시고, 수놓은 비단 자리가 빼곡히 놓인 연회에 참석하게 하셨으며, 마침 내리신 축배 자리에는 笙簫의 음악을 갖추어 연주하게 하셨습니다. 맛있는 술과 훌륭한 안주가 이미 충분했는데, 수놓은 말고삐와 보배로운 말을 또 내리셨습니다. 북쪽을 향해 공경하는 제 마음을 굽어 살피시고, 또 남쪽을 그리워하는 제 갈망을 가엾이 여기셨습니다. 참소하는 말이 꾸며낸 무늬처럼 얽혀 제 한 줄기의 행보를 방해하려 하였으나, 폐하의 밝으신 지혜로 거울처럼 살피시어 이를 쓸어버리시고, 천 리 밖으로 돌아가라는 칙명을 내리셨습니다. 무사히 돌아와 이에 이르렀으니, 그 감사하고 우러러보는 마음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42]

다-(2) 지난번 친조 때에는 閣下께서 여러모로 보호하고 돌봐 주셨으며, 저의 사정과 진실을 자세히 아뢰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황제께서 특별히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시어, 화려한 관저에 머물게 해 주시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참소하는 말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하고 막아 주셨으며, 칙령을 내려 돌아가도록 허락하시며 駿馬와 보배 안장을 하사하여 그 은총을 빛나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은혜를 입은 마음이 지극하여, 말로는 다 다할 수 없습니다.[43]

---

42) 『高麗史』 권25, 원종 원년 4월 丙寅(29일). "遣永安公僖如蒙古. (중략) 陳情表曰, '(중략) 我直深荷聖知, 薄言旋歸, 祗自感泣. (중략) 俾居桂邸, 駢羅綺繡之筵, 適賜椒觴, 備奏笙簫之樂. 旨酒嘉肴之旣足, 彫纓寶馬之又頒. 俯憐拱北之誠, 仍愍思南之翼. 讒說錦成於萋斐, 謀沮一行, 皇明鏡察以掃除, 勅還千里. 比及來歸之無恙, 其爲感戴也有加.'"

43) 『東文選』 62-4. 〈與張學士書〉. "前次親朝, 伏蒙閣下多般庇護, 以吾情實, 委悉敷奏. 由是, 皇帝特示恩慈, 館我以華邸, 慰我以雅樂. 至於讒說, 一皆禁沮, 勅許送還, 賜之駿馬寶鞍, 以侈其寵. 感荷之至, 言所未竟也."

다-(1)은 위의 나) 문서를 발송하고서 보름쯤 후인 4월 29일, 宗室인 永安公 王僖를 파견하여 쿠빌라이의 즉위를 축하하는 표문과 함께 제출한 〈陳情表〉이다. 첫머리의 "나의 바름이 성상의 알아봐주시는 은혜를 깊이 입어"라는 구절은 맥락을 풀어보자면 쿠빌라이 진영에 상당 기간 머무르는 동안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쿠빌라이가 알아봐준 덕분에 겨우 귀국할 수 있었음을 말한다. 바꿔 말하면 그를 억류해두고 고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있었는데, 쿠빌라이가 자신의 귀국을 허락해준 점을 강조한 표현이다.

(중략) 이후 부분에서는 원종 일행에 대한 쿠빌라이의 특별한 대우를 길게 강조하였다. '귀빈의 관저[桂邸]라고 한 것은 '나-(2)에서 옛날 황친의 관저에 머물게 했다는 기록과 상응한다. 그리고 화려한 연회에 참석하게 해주었다고 하는데, 역시 나-(2)에서 그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준 점을 특기했던 것과 같은 말이다. 그리고 그 시점을 나-(2)에서는 '신정 무렵'이라고 했다. 쿠빌라이가 원종에게 후한 접대를 해주었다는 사실은 여러 기록에서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염희헌과 조양필 등 온건파의 주장이 수용된 결과로, 그 전까지는 대우가 그만 못했다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이어진 구절에서 원종은 자신이 '북쪽을 향하는[拱北]' 마음과 함께 '남쪽을 그리워하는[思南]' 마음도 품고 있었는데, 참소하는 말이 있었다고 하였다. 즉 그의 귀환을 방해하는, 억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이 이 구절을 통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된다.

다-(2) 역시 원종 원년 4월, 다-(1)을 발송한 같은 시점에,[44] 당시 몽골제국에서 새로 설치한 中書省의 제2인자인 左丞에 임명되었던 張 學士, 즉 張文謙에게 보낸 문서이다. 이 글에서 원종은 자신이 받은 '화려한 관저'와 '아름다운 음악'으로 대표되는 호의적인 접대가 그의 주청 덕분이었으며, '참소하는 말'을 막아준 덕분에 귀국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요컨대 훨씬 훗날의 회고, 그에 기반한 평가가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원종이 쿠빌라이 및 그의 측근에게 보낸 문서를 통해 보건대, 그는 기미

44) 『止浦先生文集』 3-7. 〈與張學士書〉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점을 특정하였다.

년 윤11월 10일 무렵에 개봉 인근에서가 아니라 경신년 신정 무렵에 연경에서 쿠빌라이를 알현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4.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다시 만남의 시간과 장소 문제로 돌아와 보자. 2장에서 확인한 『고려사』에서는 이 만남이 양·초의 교외, 혹은 변량의 교외, 즉 개봉 인근에서 있었다고 했는데, 3장의 외교문서에서는 中都, 즉 연경에서였다고 했다. 시점도 『고려사』와 『원사』를 신뢰하며 복원하면 기미년 윤11월 10일 무렵이 되어야 하는데, 그 직후에 발송한 표문에서는 분명 신정 무렵이라고 하여 약 50일의 시차가 있다. 어느 쪽이 사실일까.

일단 기록의 가치만을 놓고 따져보자. 가)의 『고려사』 기사는 훨씬 훗날, 이제현이 작성한 〈충헌왕세가〉의 내용과 (후술) 조양필의 묘비명을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반면 『동문선』에 실린 나)의 표문은 만남이 있고 나서 약 100일 후인 4월 13일에 작성, 발신된 문서이다. 후자의 기록이 훨씬 신빙성이 높다.

그런데 양자의 간극을 메워줄 만한 기록이 『원사』 조양필 열전에 등장한다. 기미년 겨울, 조양필의 행적을 복원해보면 그는 윤11월 2일 쿠빌라이와 함께 악주에서 철군하여 북상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衛에 이르러" 쿠빌라이는 조양필을 경조로 파견했다고 한다. 이때 조양필은 섬서·사천 지역에 배치된 몽골군의 동태를 파악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는데,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사실을 모두 파악하고 돌아와 보고하였다."고 한다.[45] 앞서 언급했듯 '衛'는 허난성 허비시 치현을 말하며, 그곳은 악주부터 연경까지의 직선거리상 정확히 중간쯤에 위치한다. 그렇다면 조양필이 위에서 쿠빌라이의 본대와 떨어져 홀로 서향했을 시점은 윤11월 11일 전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은 개봉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만약

45) 『元史』 권159, 趙良弼. "至衛, 遣如京兆察訪秦·蜀人情事宜, 不踰月, 具得實還報."

가)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개봉 인근에서 원종 일행이 쿠빌라이를 만났을 당시 조양필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야 했다. 그리고 약 100km를 동행한 후 홀로 서향하여 경조로 갔다는 말이 된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돌아왔다고 하니 그 시점은 12월 초순이 될 것이고, 쿠빌라이와 재회한 위치는 연경 부근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 무렵 원종 일행이 쿠빌라이의 진영 안에 있었고, 조양필이 한 달 정도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서 보니, 고려 태자를 푸대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쿠빌라이에게 건의하여 그에 대한 접대를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자 그제야 원종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렸고, 이에 조양필이 앞장서서 그를 귀환시키자고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이렇다고 해도 가)에서 묘사한 것처럼 양자가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아마도 실상은 이렇지 않았을까? 육반산에서 뭉케의 사망 소식을 들은 원종 일행은 갈피를 잃었다. 그를 안내, 호위, 혹은 감시하던 몽골 측 인사들은 원종의 귀환을 일단 허락하였다. 서서히 동쪽을 향해 이동하던 중 경조를 지나다가 고종의 부고를 들었다. 이때 경조에는 뭉케가 파견한 밍안다르가 수비의 책임을 지고 있었으나, 이미 오랫동안 쿠빌라이가 관할해온 곳이었으며,[46] 뭉케 사후 漢人 장수들은 대체로 쿠빌라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47] 그렇다면 이 무렵 원종 일행의 거취를 결정하는 데는 쿠빌라이 측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되었을 것이다. 하여 원종 일행은 다시 동쪽으로 향하던 중 개봉 인근에서 쿠빌라이 일행과 조우하였다. 다만 당시 쿠빌라이는 매우 서둘러 북상 중이었던 까닭에 고려에서 온 이들에게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 상태로 연경까지 동행하였다. 조양필이 원종에 대한 "숙소를 소박하게 하였다"고 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였을 것이다.[48] 그러다가 연경에서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쿠빌라이가 조양필과 염희헌, 그리고 장문겸 등의 건의에 따라 그의 숙소를 바꿔주고 접대를 강화했던 것이다. 그리고 원종이 쿠빌라이를 실제로 알현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49]

---

46) 고명수, 앞의 논문, 145-149면.
47) 김호동, 앞의 책, 38-39면.
48) 이때 '숙소'라고 번역한 원문은 '供張'인데, 이는 정확하게는 연회나 휴식을 위해 마련한 장막을 뜻하며, 『宣和奉使高麗圖經』 권28과 권29의 '供張'도 같은 의미로 쓰였다. 몽골군이 사용했던 오르두를 말하는 것이다.

5. 조작된 서사의 탄생과 증폭

그렇다면 이 만남에 관한 우아한 서사는 언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원종이 쿠빌라이를 자발적으로 찾아가 만났다는 식의 언급이 사료상 등장하는 것은 충렬왕 23년(1297) 2월이 처음이었다. 이때 충렬왕은 쿠빌라이의 뒤를 이어 즉위한 그의 손자, 성종 테무르를 만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의 先臣 王禃은 뭉케 황제 기미년에 세자로서 入覲하였습니다. 이때 세조 황제께서 남쪽을 정벌하시고 돌아오실 때였는데, 선신이 袍와 笏을 갖추고서 汴梁의 옛터에서 절하고 맞이하니 세조께서 가상히 여기시고 감탄하시어 날마다 더욱 총애하셨습니다."[50] 이때는 쿠빌라이가 세상을 뜬 지 3년 뒤였다. 사건의 당사자로서 그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쿠빌라이 생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이때 비로소 꺼낸 것이다.[51]

충렬왕 4년(1278), 몽골 조정에서는 대칸의 명을 받들어 여러 나라들이 몽골 제국에 臣屬한 경위를 밝히는 『諸國臣服傳記』를 편찬했다. 그리고 편찬의 재료로 삼기 위해 고려에도 그때까지 몽골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기록해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52] 이 책은 비록 사라졌으나, 그 내용은 14세기 초 『經世大典』의 고려 항목에 그대로 실리고, 다시 현전하는 『원사』 高麗傳의 기본 사료가 되었다.[53] 『원사』 고려전에는 양자의 만남이 있었던 기미년, 경신년 무렵의 기록으로 "헌종 말에 王暰이 그 세자 王倎을 보내 入朝하였다. 세조 中統 원년

---

49) 조금 더 과감하게 추정을 더해보자면, 윤11월 11일 무렵 衛에서 출발하여 그달 20일 무렵 경조에 도착했던 조양필이 마침 그곳에 머물고 있던 원종 일행의 신병을 인수하여 함께 연경으로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럴싸한 가설일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원종과 쿠빌라이가 汴梁 인근에서 만났다는 『고려사』의 기록은 완전히 폐기해야 하므로 굳이 택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듬해 신정 무렵 연경에서 처음 만났다는 본고의 설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50) 『高麗史』 권31, 충렬왕 23년 2월 己亥. "帝幸城南, 觀獵, 王扈從奏曰, '臣之先臣禃, 於蒙哥皇帝己未歲, 以世子入覲. 時世祖皇帝, 回自征南, 先臣具袍笏, 迎拜于汴梁之墟, 世祖嘉嘆, 寵睠日隆.'"

51) 고명수, 앞의 논문, 154면에서는 "원종과 쿠빌라이는 서로 국서를 보낼 때 변량에서의 만남을 언급하며 양국 화친에서 갖는 특별한 의미를 상기시켰다."고 해석하였으나, 이 무렵 양자가 주고받은 문서 가운데는 원종의 솔선귀부, 변량에서의 극적인 만남 등 구체적인 장면 묘사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52) 『高麗史』 권28, 충렬왕 4년 7월 丁亥. "中書省令具錄本國累朝事跡, 及臣服日月, 與帝登極已來, 使介名目, 國王親朝年月, 以呈, 因國史院報也."

53) 정동훈, 「『元史』 高麗傳의 史源」, 『東方學志』 197, 2021.

(1260) 3월, 왕철이 사망하니, 왕전에게 귀국하도록 명하고 고려국왕으로 삼았다."라고만 하였다.[54] 어디에도 원종이 쿠빌라이를 자발적으로 찾아와 솔선귀부했다거나 그로써 천명의 소재를 밝혔다는 식의 이야기는 없다. 즉『제국신복전기』를 작성한 1278년 무렵, 그 요청에 응해 고려에서 그간의 양국관계를 정리해 몽골 조정에 제출했던 당시에는 이런 서사를 만들지 못 했던 것이다. 쿠빌라이 본인이 그 진실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니, 감히 생각하지 못 했을 것이다.

이러한 서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창출해내고, 몽골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인물은 이제현이었다. 2장에서 검토한『고려사』세가 가)의 생생한 묘사는 이제현이 편찬한 〈충헌왕세가〉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55] 〈충헌왕세가〉는 제목과는 달리 태조부터 충선왕까지 각 국왕의 재위기간의 중요 치적을 망라한 일종의 통사이면서, 특히 충헌왕(고종), 忠敬王(원종)과 충렬왕이 몽골제국에 세운 공적을 상세히 서술한 내용을 담고 있다.[56] 최종적으로 이 책은 충선왕 사후(1325), 충선왕이 시호를 받기 전(1344)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된다.[57] 그러나 거기에 정리되기에 앞서 이제현은 일찍부터 이 만남 장면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 강조했다.

라-(1) 기미년에 세조 황제께서 강남에서 군사를 돌리셨을 때, 忠敬王은 天命이 돌아간 곳, 人心이 복종하는 바를 알고 6천여 리를 산 넘고 물 건너가서 변량의 땅에서 절하고 맞이했습니다.[58]

라-(2) 세조 황제께서 남쪽을 정벌하시다가 돌아와 장차 대통을 잇게 되었을 때, 아우 하나가 삭방에서 변란을 선동하므로 제후들이 우려하고 의심하여 도로가 매우 삼엄하였습니다. 우리 충경왕은 세자로서 군신을 거느리고 양초지교에서 절하며 영접하시었습니다. 이에 온 천하가 먼 나라 사람들이 기뻐하여 복종함을 보고는 천명이 돌아간 곳을 알게 되었으니, 이는 폐읍이 세조황제께 충성을 다한 일입니다.[59]

---

54)『元史』권208, 高麗. "憲宗末, 暾遣其世子倎入朝. 世祖中統元年三月, 暾卒, 命倎歸國爲高麗國王."
55)『益齋亂藁』卷9上, 〈忠憲王世家〉
56) 박종기,「원 간섭기 역사학의 새로운 동향 - 當代史 연구」,『한국중세사연구』31, 2011, 386-390면.
57) 박종기, 위의 논문, 391-392면.
58)『益齋亂藁』권6, 〈在大都上中書都堂書〉. "於己未年, 世祖皇帝班師江南, 忠敬王知天命之有歸, 人心之攸服, 跋涉六千餘里, 迎拜于汴梁之地."

라-(3) 세조 文武皇帝께서 襄陽에서 군사를 사열할 적에 아릭 부케가 漠北에서 변란을 선동하였으므로, 제후들이 의심을 품고 각각 거취에 대하여 생각하였었습니다. 우리 충경왕은 당시 세자로 있으면서 서리와 이슬을 무릅쓰고 곧바로 汴梁에 이르러 길에서 맞이하였습니다, 세조께서 바라보시고는 놀라고 기뻐하며 말씀하시기를, "고려는 아득히 먼 나라이다. 내가 북으로 돌아가 장차 대통을 이으려 하는데, 저들의 세자가 스스로 와서 귀부하니, 이는 하늘이 나를 돕는 것이다." 하시었습니다.[60]

라-(4) 엎드려 생각하건대 聖祖께서 의를 떨쳐 기업을 여실 때 소국은 소문만 듣고도 먼저 복종하여, 위엄을 도와 적을 토벌해서 遼 백성들의 불안해하는 모의를 막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군사를 맞이하여 세조께서 용흥하시는 왕업을 도왔습니다.[61]

라-(1)과 라-(2)는 충숙왕 10년(1323), 충선왕이 티벳으로 유배되었을 때 그의 방환을 청하며 몽골제국의 중서성과 郎中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여기서는 원종이 쿠빌라이를 찾아간 것은 천명과 인심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이며, 이에 '온 천하'가 천명이 쿠빌라이에게 있음을 알게 만든 공을 세웠다고 강조하였다. 라-(3)은 忠惠王 후5년(1344), 충혜왕이 폐위되어 몽골로 연행된 직후 征東行省에 올린 문서의 일부이다. 여기서는 원종이 "서리와 이슬을 무릅쓰고" 곧바로 쿠빌라이를 찾아갔다고 하였다. 라-(4)도 비슷한 시점에 쓰인 문서인데, 여기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쿠빌라이를 마주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라-(3)에서는 이에 쿠빌라이가 "하늘이 나를 돕는 것이다."라고 찬탄했다고 하며, 라-(4)에서는 이로써 세조의 "용흥하시는 왕업을 도왔다."고 강조하였다.

---

59) 『益齋亂藁』 권6, 〈同崔松坡贈元郎中書〉. "世祖皇帝南征而返, 將繼大統, 時有介弟扇變于朔方, 諸侯憂疑, 道路甚梗. 我忠敬王以世子, 率群臣拜迎于梁楚之郊. 天下於是, 覩遠人之悅服, 知天命之有歸, 是則弊邑盡忠於世祖皇帝者也."

60) 『益齋集』 拾遺, 〈上征東省書〉 "世祖文武皇帝觀兵襄陽, 阿里孛哥扇變漠北, 諸侯虞疑, 各懷去就. 我忠敬王時爲世子, 蒙犯霜露, 直至汴梁, 以迎于道. 世祖望見驚喜曰, '高麗荒遠之邦, 今我北歸, 將繼太統, 彼其世子, 自來歸我. 天贊我也.'"

61) 『益齋亂藁』 권8, 〈陳情表〉. "伏念, 自聖朝奮義而肇基, 惟小國向風而先服, 助威討賊, 遏遼民狼顧之謀, 冒險迎師, 贊世祖龍興之業."

원종이 쿠빌라이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쿠빌라이가 아릭 부케와 칸위 계승을 두고 대립한 상황에서 원종은 천명과 인심의 소재를 알았기 때문에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6천여 리를 산 넘고 물 건너 굳이 찾아갔던 것이다. 이로써 쿠빌라이는 하늘이 자신을 돕는 것이라고 기뻐하고, 천하 사람들 또한 천명이 누구를 향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것은 원종이 쿠빌라이에게 큰 공을 세운 것이라는 논리이다. 사실 관계를 약간 비튼 후,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그리고 후대의 평가까지를 모두 지어내거나 혹은 크게 부풀린 것이다.

라-(4)에서는 이 만남을 두고, 과거 고종 때 거란인들을 추격하여 한반도에 진입했던 몽골군들을 도와 그들을 토벌했다는 사실과 나란히 배치하여, 이를 역대 고려 왕들이 몽골제국에 공로를 세운 사례로 열거하였다. 그리고 다른 여러 글들에서는 여기에 더해 충렬왕이 쿠빌라이의 공주를 맞이하여 사위가 된 사실을 그러한 공로의 다른 한 장면, 혹은 그러한 공로가 누적된 결과로 분식하였다. 즉 고종은 칭기스칸에게 원종은 쿠빌라이에게 솔선귀부한 공로가 있다는 것이다.[62]

한편 몽골 측에서는 이 만남 끝에 쿠빌라이가 원종을 국왕으로 삼아 귀국시키는 결단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는 서사를 구성했다. 충선왕 2년(1309), 武宗 카이샨이 원종에게 충경왕이라는 諡號를 내리면서 보낸 制書에서는 이때의 사건의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 마. 처음에 몸소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토산물을 가지고 入貢하였다. 마침 桓肅(뭉케를 가리킴)이 사천(四川)을 돌아 서쪽으로 순행을 나가셨으며 세조 황제께서는 長江 일대에서 남쪽을 안무하고 계셨다. 속히 사신의 왕래가 통하기만을 바라고 있었으니, 어찌 편히 세상이 변하기만을 기다릴 수 있었겠는가. 길에서 오래 막혀 있었으니, 황실에 內訌이 잇달아 일어났는데, 거듭 명령을 받들고 부르심에 응하여 낮 접견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63]

---

62) 이에 대해서는 모리히라 마사히코 지음, 이명미・정동훈 옮김, 『몽골 패권하의 고려』, 서울대 출판문화원, 2024, 31-38면 참조.

63) 『國朝文類』 권12, 〈高麗國王封贈祖父母制〉. "初父命之親承, 以土宜而入貢. 會桓肅西巡於川徼, 而世皇南撫於江壖. 亟期行李之通, 寧恤歲華之易. 途屯以永, 內訌仍遘於家艱. 號渙其申, 還納旋膺於晝接." 이 글

여기서는 원종이 뭉케의 조정에 친조하러 왔다가 '내홍' 탓에 길이 막혀 사신의 왕래가 쉽게 통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한 것은 쿠빌라이가 거듭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원종과 쿠빌라이는 하늘의 뜻에 따라 운명적으로 만났고, 또 처음부터 대단한 예의를 갖춘 채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식의 '기억' 혹은 서사는 창작, 날조된 것이었다. 즉 원종이 처음 쿠빌라이 진영에 들어온 이래 약 50일 정도 거의 억류에 가까운 상태로 푸대접을 받았던 '사실'은 고려와 몽골 양쪽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굳이 언급하기에 불편한 진실이었으니, 양자 모두 침묵하는 쪽을 택한 것이리라.

원종과 쿠빌라이의 만남에 얽힌 사실관계가 재구성되고, 그것이 후대의 역사 평가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자, 이제현이 창작해낸 서사는 『고려사』 원종 세가의 원종 귀국 기사 바로 뒤에 배치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본고에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근거로 삼은 김구의 표문, 즉 위의 인용문 나)는, 그가 지은 다른 대부분의 문서들과는 달리 『고려사』 세가에 인용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두고 후대의 역사 편찬자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 바. 또한 아릭 부케가 헌종의 嫡子로서 군사를 거느리고 上都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세조 황제는 藩王으로서 梁·楚의 교외에 있었으나, 천명과 민심의 거취를 능히 깨닫고서 가까운 곳을 버리고 먼 곳으로 갔으니 세조 황제께서 이를 가상히 여기시어 공주를 왕자에게 시집보내기까지 하셨다. 이로부터 대대로 장인과 사위의 호의를 맺어 동방 백성들로 하여금 백년 昇平의 기쁨을 누리게 하였으니, 이 또한 가상한 일이다.64)

을 지은 것은 당시 翰林學士承旨로서 『世祖實錄』 편찬에 참여하기도 했던 王構였다. 이 制書는 그대로 『고려사』 세가에도 실렸다. 『高麗史』 권33, 충선왕 2년(1309) 7월 乙未.

64) 『高麗史』 권27, 元宗, "史臣贊曰, '(중략) 又阿里孛哥, 以憲宗嫡子, 阻兵上都, 世皇以藩王, 在梁楚之郊, 而乃能識天命民心之去就, 舍近之遠, 世皇嘉之, 至以公主, 歸于王子. 自是, 世結舅甥之好, 使東方之民, 享百年昇平之樂, 亦可尙也.'"

바)는 『고려사』 원종 세가의 마지막에 실린 史臣의 평가이다. 여기서 '사신'이란 鄭道傳이다.[65] 이 기사에는 사실 관계에 오류가 많다. 아릭 부케는 헌종, 즉 뭉케의 적자가 아니라 동생이었다. 당시 아릭 부케는 상도가 아니라 카라코룸에 있었다. 그런데 이 평가에는 단순한 사실관계 말고 '사신'의 해석이 적극 개입되어 있다. 원종이 '천명과 민심의 거취를 능히 깨닫고서' '가까운 곳을 버리고 먼 곳으로' 자발적으로 찾아가 쿠빌라이를 만났다고 하였다. 또한 그 결과 쿠빌라이가 이를 가상히 여겨 공주를 하가하였고, 그 덕분에 동방 백성들이 긴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고까지 평가하였다. 논리적 인과관계를 훌쩍 뛰어 넘은 설명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사건이 발생한 지 130여 년이 지나 1390년대에 작성한 글에서 정도전은 이 만남을 두고 '가상한 일'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요컨대 원종이 자발적으로 쿠빌라이를 찾아가서 알현했다고 하는 서사는, 사건의 당사자인 쿠빌라이가 사망한 이후 처음 등장하였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면서 원종의 자발성, 그리고 그의 쿠빌라이에 대한 공헌의 크기는 점차 과장되었다. 약 50일 동안 억류 내지 푸대접을 받았다는, 양측 모두에게 불편한 진실은 자연스럽게 축소, 은폐된 끝에 기록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6. 결론

이 글에서는 기미년(1259) 연말 무렵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 원종과 쿠빌라이의 만남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추적해보았다. 『고려사』 세가에서는 원종이 자발적으로 쿠빌라이를 찾아갔으며, 그 결과 쿠빌라이는 천명을 등에 업었음을 천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다는 서사로 정리해두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에 원종이 쿠빌라이에게 보낸 외교문서에 드러난 진실

65) 『三峯集』 권12, 經濟文鑑別集, 君道, 高麗國, 元王의 史臣贊 내용이 『高麗史』의 그것과 일치한다. 『高麗史節要』 권19, 元宗 마지막의 '史臣曰' 내용 또한 이와 일치한다.

을 재구성해보면 원종이 쿠빌라이를 알현한 것은 경신년(1260) 정월 초하루 무렵, 연경에서였다. 그때까지 기미년 겨울, 원종은 쿠빌라이의 진영에 합류한 후 약 50일 동안 억류 상태에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쿠빌라이 진영 내부에서는 고려에 대한 강경책과 온건책 양자가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었다. 김구의 표문에 등장하는 '참소하는 말', '교묘한 말'이란 원종을 억류해둔 채 고려 정벌을 끝까지 밀어붙이자는 주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쿠빌라이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온건책이었다. 염희헌, 조양필, 그리고 장문겸 등으로 대표되는, 세자를 우대해서 새로운 고려국왕으로 삼아 돌려보내자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이다.

다만 우리가 몰랐던 것은, 이러한 결정이 물 흐르듯 순조롭게 내려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중간의 우여곡절은, 몽골과 고려 양쪽 모두에게 불편한 사실이었다. 그러니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이 사실을 덮어버리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서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다. 이쪽이 고려와 몽골 모두에게 아름다운 결론이었다. 원종은 자발적으로 쿠빌라이를 찾아갔고, 이는 쿠빌라이에게 천명과 민심의 소재를 알려준 것이었다는 서사가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1274년에 원종이, 그로부터 20년 후 쿠빌라이가, 그리고 그 중간 어느 샌가 그때의 일을 기억하는 이들이 모두 사망한 뒤로, 양측의 당국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구성된 사실이었을 뿐이었다. '불편한' 실제 사실보다는 모두에게 좋은 쪽으로 구성된 사실이 선택되었고, 누구도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구성된 사실은 유일한 버전으로 사료에 남아 지금까지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高麗史』,『高麗史節要』,『元史』
金坵,『止浦先生文集』, 成均館大學校, 1984.
李齊賢,『益齋亂藁』, (민족문화추진회 옮김)『(국역) 익재집』, 1979・1980.
李齊賢,『益齋集』, (민족문화추진회 옮김)『(국역) 익재집』, 1979・1980.
鄭道傳,『三峯集』, (민족문화추진회 옮김)『(국역) 삼봉집』, 1988.
徐居正 等 撰集,『東文選』, (민족문화추진회 옮김)『(국역) 동문선』, 1966-68.
蘇天爵 撰,『國朝文類』, 上海: 商務印書館, 1928.
蘇天爵 撰,『元朝名臣事略』, 北京: 中華書局, 1985.

고명수,「1259년 왕전王倎-쿠빌라이 만남의 의미」,『인문과학연구』37, 2023.
김장구,「대몽골국 초기(1206-1259) 카라코룸으로 간 고려사신들」,『이화사학연구』57, 2018.
김호동,『몽골제국과 고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7.
李益柱,『高麗・元關係의 構造와 高麗後期 政治體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
박종기,「원 간섭기 역사학의 새로운 동향 - 當代史 연구」,『한국중세사연구』31, 2011.
張東翼,『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綜合年表』, 동북아역사재단, 2009.
정동훈,「고려 사신의 몽골 잠치(站赤) 이용」,『사학연구』134, 2019.
_____,「동방왕가의 사업에서 쿠빌라이의 사업으로 - 쿠빌라이의 즉위와 고려-몽골 관계의 큰 전환 -」,『韓國史硏究』191, 2020.
_____,「『元史』高麗傳의 史源」,『東方學志』197, 2021.
_____,「고려가 몽골제국에 바라는 것 - 김구(金坵)의 외교문서에 표현된 원종 대 양국관계의 재구성 -」,『韓國史硏究』198, 2022.
宮崎市定,「鄂州之役前後」,『アジア史硏究』1, 東京: 同朋舍, 1957.
모리히라 마사히코 지음, 이명미・정동훈 옮김,『몽골 패권하의 고려』, 서울대 출판문화원, 2024.
蕭啓慶,「忽必烈「潛邸舊侶」考」,『元代史新探』, 臺北: 新文豊出版公司, 1983.
杉山正明,『クビライの挑戰 - モンゴル海上帝國への道』, 東京: 朝日新聞社, 1995.
_____,『モンゴ帝國と大元ルウルス』,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4.

【Abstract】

A Beautiful Veil over an Uncomfortable Truth: A Reconstruction of the Encounter between King Wonjong and Khubilai in 1260

Jung, Dong-hun*

This study re-examines the 1260 meeting between King Wonjong of Goryeo and Khubilai Khan, a watershed moment that ended decades of war and marked the beginning of a new era. While official histories such as the *Goryeosa* and *Yuanshi* present this encounter as a providential event symbolizing Khubilai's "Heavenly Mandate," this paper challenges such "seemingly coherent narratives." By cross-referencing diverse records, this paper argues that the meeting was likely a contingent encounter amidst the political chaos following Möngke Khan's death, rather than a planned act of voluntary submission.

The traditional narrative was a sophisticated historiographical construction, orchestrated by figures such as the Goryeo scholar-official Yi Jehyeon and Zhao Liangbi, a moderate official from the Mongol side. They synthesized disparate accounts to efface "inconvenient truths"—the accidental and uncertain nature of the initial contact—and replaced them with a symbolic legacy that served the political legitimacy of both dynasties. The key to deconstructing this constructed narrative lies in contemporary diplomatic documents; these records, produced immediately after the event but excluded from official dynastic histories, provide a more accurate reflection of what actually transpired.

Ultimately, this research reveals that for later authorities, "historical plausibility" often outweighed empirical accuracy. The narrative of Wonjong's voluntary submission and Khubilai's enthusiastic reception was a strategic political discourse designed to stabilize the Goryeo-Mongol relationship for over a century. By uncovering these hidden layers, the study highlights the complex interplay between historical reality and historiographical invention in East Asian diplomacy.

Keywords: Wonjong, Khublai, Zhao Liangbi, Kim Gu, Yi Jehyeon

접수일: 2026.06.30. || 심사일: 2026.08.07. || 게재확정일: 2026.08.14.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 of Education.